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18세기 초 잉글랜드
지주층의 경제 인식

- 로저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를 중심으로 -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한지원

18세기 초 잉글랜드 지주층의 경제 인식

- 로저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를 중심으로 -

지도 교수 주 경 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한지원

한지원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위 원 장 _____ 안 병 직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주 경 철 _____ (인)

위 원 _____ 최 갑 수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로저 노스(Roger North, 1651-1734)의 지주들을 위한 복식부기 안내서 『젠틸맨 회계사(The Gentleman Accomptant, 1714)』를 통해 18세기 초 잉글랜드 지주층의 변화된 경제 인식을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당시 잉글랜드에서는 전통적 지주층이 여전히 사회 주도세력으로 권력을 유지한 한편 상업·금융업과 같은 새로운 경제발달을 기반으로 ‘화폐이해(moneyed interest) 계층’이 급속히 성장했다. 지주층과 이 상인·금융가들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상인·금융가들의 사회적 상승과 지주층 문화의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반면 지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영국의 지주들이 토지를 영리적으로 경영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여전히 이윤보다는 권위와 질서가 중시되어 이들의 경제활동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젠틸맨 회계사』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화폐이해 계층’이 대두되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지주층의 의식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 양상을 추적해 볼 것이다. 이 시기 전통적 지주들은 아직 상업세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으나, 지주층 사이에서도 상업·금융업의 발달에 예민하게 반응한 흐름이 존재했다.

노스의 『젠틸맨 회계사』는 지주층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지식을 토지관리에 활용할 것을 권하고 설명한 책이다. 그 자신이 지주로서 복식부기를 접하고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이미 영국에는 중간관리인들이 ‘의무-이행 장부’라는 단식부기 장부로 토지를 관리하던 관행이 존재했고, 부채지주들의 증가로 인해 토지관리 장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토지를 경영한다는 개념도 지주들에게 친숙해져 갔다. 노스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식부기가 상업세계의 기술임에도 지주들의 사적인 필요에 매우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노스의 책은 당시 복식부기를 토지관리에 도입할 것을 권한 여러 다른 사례들 중에서도 대표적이다. 이 책은 복식부기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보여주고 또한 길고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어 복식부기가 지주들에게 어떻게 권고되었는지가 잘 드러난다. 이 책의 내용과 행간을 통해서 지주들이 토지에 복식부기를 도입을 고려하게 된 배경의 경제 인식을 알 수 있다. 복식부기는 지주들이 토지 내의 농업과 가사 전반의 일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며 속임수로 인한 손해를 면하게 해주는 기법이였다.

『젠틀맨 회계사』에 예시된 토지의 운영 양상과 장부 구성도 지주의 높은 금전적 관심을 반영한다. 지주는 토지 운영의 사소한 일들까지 직접 꼼꼼히 챙기고, 자신의 사생활까지도 관리의 대상으로 장부에 기록해 넣는다. 이 책은 지주가 복식부기를 토지관리에 적용하기 위해 생활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일상적 삶의 영역과 정신적 또는 문화적 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주들은 당대의 경제 발달에 결코 무심하지 않았으나 18세기 초에 지주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 자료는 지주들이 오히려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금융시장에 대해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경계했음을 보여준다. 『젠틀맨 회계사』에서 노스는 주식거래에서의 사기와 협잡이 내부자들의 공모와 법인을 내세운 법적 책임 회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그로 인해 지주가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결코 노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주식에 대한 비판과 경계는 당시 지주층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박한 위기감을 배경으로 복식부기가 지주들의 이해를 보호할 수단으로 권고되었던 것이다.

복식부기가 본래 상업세계의 기술이라는 사실이 지주층의 위기감을 더욱 강조해준다. 복식부기는 당시 주로 ‘상인회계’라고 불렸고 『젠틀맨 회계사』도 복식부기가 상업의 기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복식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배울만한 기법으로 소개되었다. 지주들의 삶과 상업세계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는 이 선택의 이면에는 예민한 경제적 관심이 작용했다.

또한 『젠틀맨 회계사』는 지주층이 상업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더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경제 발달에 대처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

추구에서도 이미 현저히 달라진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거해 생활을 통제하고 관리·조직한다는 관념은 이전 시기에는 낯선 것이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초기적 자본주의 정신의 발달을 찾아볼 수 있다. 지주층의 주된 경제적 기반은 여전히 토지였더라도, 토지의 관리와 활용에 작용하는 가치관은 상업세계의 발달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었다.

주요어 : 로저 노스(Roger North), 지주층, 토지관리, 복식부기, 경제 인식, 자본주의 정신

학 번 : 2010-22958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젠틀맨 회계사』와 지주층.....	7
1. 로저 노스와 『젠틀맨 회계사』	7
2. 지주층을 위한 회계안내서.....	12
III. 토지관리를 위한 복식부기.....	18
1. 복식부기의 유용성.....	18
2. 금전적 관심과 복식부기를 통한 토지관리.....	20
3. 경제적 사고의 변화.....	24
IV. 주식시장의 문제와 지주층의 태도.....	28
1. 주식거래의 위험성.....	28
2. 지주층의 경제 인식과 주식투자.....	31
V.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2

I. 서론

17~18세기 영국에서는 전통적 지주층이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집단이 두드러지게 성장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엘리트층에 대비하여, 이 집단은 ‘화폐 이해(moneyed interest)’ 계층, 곧 화폐로 된 부에 기반을 둔 자들로 규정되었다. 자기 토지로부터의 산출이나 지대 수입이 아닌 상업·금융업과 같은 경제분야의 급속한 발달을 바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영국 근대사의 중요한 특징은 이들과 전통적 지주층이 사회의 지배엘리트로 공존했다는 점이다.

지주층과 상인·금융가들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기존 연구자들은 지주들을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상인과 금융가들의 사회적 상승여부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헉스터(J. H. Hexter)는 성공한 상인·금융가들이 토지를 사서 지주가 되고자 했고, 지주층이 이들을 상당히 유연하게 수용함으로써 수세기 동안 권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스비(Richard Grassby)도 지주층과 상인·금융가들 사이의 유동성이 컸으나 상인들이 지주층에 융화되고자 했으므로 이들의 성장이 기존의 권력구조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반면, 로렌스 스톤과 잔느 스톤(Lawrence Stone and Jeanne C. F. Stone)은 영국 세 개 주(shire)의 연구를 통해 지주층이 안정적이고 폐쇄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주장했다. 화폐이해 계층으로부터 지주층으로의 유입은 드물었고, 유입된 이들도 대개 사회적으로 융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¹ 랑(R. G. Lang), 로저스(Nicolas Rogers), 호르비츠(Henry Horwitz)는 앞의 연구자들과 달리 상인들을 자의식을

¹ J. H. Hexter, *Reappraisals in History: new views on history and society in early modern Europe*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pp. 71-149; Richard Grassby, *The business community of seventeenth-century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 29-81, 373-418; idem, "Social mobility and business enterprise in seventeenth century England," in *Puritans and Revolutionaries*, ed. D. Pennington and L. Thom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Lawrence Stone and Jeanne C. F. Stone, *An Open Elite?: England 1540-1880* (Oxford: Clarendon, c1984) pp. 3-29, 211-292, 397-426.

가진 하나의 경제 주도 계층으로 이해했다. 채프먼(S. D. Chapman)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런던의 금융가들이 귀족과 통혼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문화적으로도 귀족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역시 상인·금융가들의 지주화 여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다.²

한편 지주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은 비교적 일관되게 묘사되었다. 영국 지주들은 대륙과 달리 시장논리를 토지에 적용하는 데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동시에 이들의 경제활동은 ‘신사적 가치’의 제한을 받았다는 것이다. 스톤 부부는 지주들이 토지를 통해 ‘최대 이윤’보다도 오히려 ‘최대한의 권력과 지위’를 추구했다고 보았다.³ 위너(Martin J. Wiener)는 지주들의 가치가 기업가들과 사업가들의 진취적 경제활동, 적극적 이윤추구와 배치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19세기 영국의 경제적 쇠퇴의 원인은 엘리트 교육을 통해 기업가와 산업가들의 정신이 젠트리화(gentrification) 된 데에 있었다.⁴ 케인과 홉킨스(P. J. Cain and A. G. Hopkins)는 17세기 말 지주들이 “시장논리를 수용할 태세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봉건적 전통의 계승자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지주들이 질서, 권위, 신분과 같은 전자본주의적(pre-capitalistic) 가치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므로 상업적 농업으로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윤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거나 일상적인 생산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경시했고, 그에 따라 이 이상에 부합하는 신사적 자본주의가 발달했다.⁵

² R. Lang, “Social Origins Aspirations of Jacobean London Merchants,”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ol. 24, No. 1 (1974); Nicolas Rogers, “Money, land and lineage: the big bourgeoisie of Hanoverian London,” *Social History*, Vol. 4, No. 3 (1981), pp. 437-454; Henry Horwitz, “The Mess of the Middle Class Revisited: The Case of the Big Bourgeoisie of Augustan London,” *Continuity and Change*, Vol.2, Part 2 (1987), pp. 263-296; S. D. Chapman, *Merchant Enterprise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³ Stone and Stone, *An Open Elite?*, pp. 282-286.

⁴ Martin J. Wiener, *English Culture and the Decline of the Industrial Spirit, 1850-19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⁵ P. J. Cain and A. G. Hopkins,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Expansion Overseas I. The old Colonial System, 1688-1850,” *The Economic History Review*, New Series, Vol. 39, No. 4 (Nov., 1986), pp. 501-525; idem, *British*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지주들의 전통적 가치가 존속하며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이는 이후 영국의 역사 발달에 대한 원인 설명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에서 ‘젠틀맨’의 개념이 신분보다 덕목과 태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일부 상인·금융가와 산업가들을 포함하게 되었듯이,⁶ 지주층의 인식과 가치관도 급격한 경제의 발달과 신흥세력과의 교류를 통해 변화해갔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로저 노스(Roger North, 1651-1734)의 『젠틀맨 회계사(The Gentleman Accomptant, 1714)⁷』를 통해 18세기 초 잉글랜드 지주층의 경제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책은 지주인 저자가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저술한 복식부기 안내서이다. 노스는 복식부기가 지주들에게도 크게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복식부기를 이용하여 토지와 가사의 운영을 관리할 것을 권했다. 복식부기는 주로 상업분야에서 쓰인 기법으로 지주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중간관리인들이 단식부기 장부로 토지를 관리하던 관행이 이미 존재했고, 또 런던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들의

Imperialism: Innovation and Expansion, 1688-1914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3), pp. 39-40.

⁶ Stone and Stone, *An Open Elite?*, p.23; Cain and Hopkins, *British Imperialism*, p.38. 신사적 가치의 변화는 17세기의 논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주의 자식이 교역상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도제가 되면 신사적 가치가 훼손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Stone and Stone, *An Open Elite?*, p.21.

한편, 젠틀맨의 기준이 되는 신사적 가치의 확장이 경제적 발달과 관련 있음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나 그 양상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이해된다. 얼은 젠트리들의 차남 이하의 자녀들이 상업세계에 다수 진출한 것이 상업의 지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코어필드(Penelope J. Corfield)는 젠틀맨의 개념이 신분과 토지가 아닌 미덕과 태도를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은 지주들이 독점적 권력을 잃고, 혈통이나 토지뿐만이 아닌 부와 상업적 성공도 인정받게 된 결과라고 보았다. Earle,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business, society, and family life in London, 1660-173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p. 7-8; Penelope J. Conrfield, “The Rivals: landed and other gentlemen,” in *Land and Society in Britain, 1700-1914: Essays in Honour of F.M.L. Thompson*, ed. F. M. L Thompson, N. B. Harte and R. Quinault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⁷ ‘accomptant’는 원래 형용사로 쓰였으나 이 시기에는 명사와 형용사 둘 다 될 수 있었다. Robert H. Parker, “Roger North: gentleman, accountant and lexicographer,” *Accounting History*, Vol. 2, No. 2 (November, 1997), p.35. 본 글에서는 ‘accompt’가 영어 단어 ‘account’와 동일하게 쓰이고 또 변화되므로 명사로 번역했다.

증가로 인해 토지관리인들이 작성하는 장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었다.

노스의 『젠틸맨 회계사』는 복식부기를 이용한 토지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저작이다. 토지관리를 위한 회계안내서 중에 복식부기를 적용한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중요성 면에서 이 책에 필적하지는 못 한다. 『젠틸맨 회계사』는 내용이 가장 충실하고 상세하다. 이 책에 실린 예시를 보면 부기 기법의 완성도가 매우 높고 내용이 자세할 뿐만 아니라, 비망록, 분개장, 원장과 현금출납부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책은 1714년에 초판 된 후 1715년에 재판이 나왔고, 아마도 1720년에 있었던 일련의 ‘거품사건’ 들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 이후 이 책의 내용이 호응을 얻어 1721년에 3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젠틸맨 회계사』는 복식부기를 토지관리에 적용시킨 매우 이른 시기의 저작으로서, 독자들에게 이 기법을 배우고 적용하라는 것을 거듭 권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상업세계의 산물인 복식부기가 지주층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로저 노스는 제4대 노스 남작의 여섯째 아들로, 그의 형제들 전기를 쓴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⁸ 특히 그의 셋째 형인 두들리 노스(Dudley North)가 성공한 교역상이자 경제이론가로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므로 로저의 글은 두들리에 관한 연구에 빈번히 참조되었다. 그래스비(Richard Grassby)가 저술한 두들리 노스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서가 대표적이다.⁹ 그러나 그간의 학술적 관심이 로저 노스보다 그의 형제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탓에 『젠틸맨 회계사』를 비롯한 그의 저작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했다.

『젠틸맨 회계사』를 비중 있게 다룬 연구로는 파커(Robert H. Parker)와 글라이셔(Natasha Glaisy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¹⁰ 그러나

⁸ 그의 형제 중 둘째인 프랜시스 노스(Francis North)는 국왕의 국새상서(國璽尙書, Lord Keeper of the Great Seal)로, 셋째인 두들리 노스(Dudley North)는 성공한 교역상(merchant)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특히 두들리 노스는 성공한 상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주장한 논객이기도 했다. 『교역론(Discourse on Trade, 1691)』이라는 익명출판 된 소책자가 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⁹ Richard Grassby, *The English Gentleman in Trade: The Life and Works of Sir Dudley North, 1641-91* (Oxford: Clarendon Press, 1994).

¹⁰ Parker, “Roger North,” pp. 31-51.; Natasha Glaisyer, “The Compleat

파커의 논문은 『젠틸맨 회계사』에 집중한 연구이면서도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쳤고, 글라이셔의 책은 『젠틸맨 회계사』의 끝에 실려있는 용어집만을 주로 다루었다.¹¹ 다만 『젠틸맨 회계사』는 16-18세기 복식부기의 발전을 다룬 연구의 사료목록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특히 회계사(會計史)에서 근래에 복식부기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다시 조명하면서 『젠틸맨 회계사』가 부분적 예시로 활용되었다.¹² 그러나 이런 경우 『젠틸맨 회계사』는 복식부기에 대한 당대의 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들 중의 하나로 인용될 따름이었다.

이 논문은 『젠틸맨 회계사』를 통해 단지 부기 방식이 전달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에서 지주층의 사고방식과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경제 주도 세력이 성장해 갈 때 지주층은 그런 변화의 흐름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이 글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 글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 알려져 있는 지주층이 사회 경제적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정신자세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나가고 있는 측면을 추적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Compting house: Manuals for Merchants,” in *The Culture of Commerce in England 1660-1720* (London: The Boydell Press, 2006), pp. 100-142.

¹¹ 글라이셔의 책의 해당 부분은 『젠틸맨 회계사』가 아니라 상업안내서들을 다루며, 특히 용어집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스의 『젠틸맨 회계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이다. 노스의 책에 포함된 용어집은 당시 두 번째로 출간된 회계용어집으로, 주목 받을 만한 것이었다. 당시 첫 번째 회계용어집은 스테펜 몬티지(Stephen Montage)의 『난어(難語) 풀이(Explanation of Hard words, 1675)』이다. 그러나 15개 단어만으로 이루어졌고, 알파벳 순서의 정렬도 아니었다. 반면 노스의 용어집은 26쪽 분량으로 100개 이상의 단어를 실고 있으며, 대체로 알파벳 순서에 따랐다. Parker, “Roger North,” p. 39.

¹² 복식부기와 자본주의의 발달에 관한 논의는 야미(Basil S. Yamey)와 윈점(James O. Winjum), 그리고 이후 브라이어(R. A. Bryer) 등에 의해 재조명 되었다. Basil S. Yamey, “Account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Further Notes on a Theme by Sombar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 No. 2 (Autumn, 1964), pp. 117-136; James O. Winjum, “Account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An Accountant’s View,”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9, No. 2 (Autumn, 1971), pp. 333-350; R. A. Bryer, “The history of accounting and the transition to capitalism in England. Part one: theory,”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5 (2000), pp. 131-162; idem, “The history of accounting and the transition to capitalism in England. Part two: evidenc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5 (2000), pp. 327-381.

『젠틀맨 회계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주층과 복식부기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 책에 나타난 지주의 경제적 관심이 단순히 재산 손실에 대한 우려를 넘어 적극적인 재산 관리와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4장에서는 지주들에게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이 주식거래였고 주식시장에 대한 경계심의 배경에도 예민한 경제적 관심이 자리했음을 보일 것이다.

II. 『젠틀맨 회계사』와 지주층

이제 젠틀맨을 위한 회계 안내서라는 자료를 통해 전통적인 지주층의 경제 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저자가 누구이며, 이 자료는 어떤 성격의 글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로저 노스와 『젠틀맨 회계사』

『젠틀맨 회계사』의 저자인 로저 노스는 1651년 노스 남작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7세에 다섯째 형 몬태규 노스(Montague North)와 함께 교구 성직자로부터 개인교습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2세에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16세이던 1667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사였던 형 존 노스(John North)와 함께 지내며 공부했다.¹³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위를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법률가로서 순조로운 길을 걸었다. 그는 왕좌법원(the Kings Bench)의 수석재판관인 헤일스 경(Sir Matthew Hale's)¹⁴ 하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1684년에는 법무차관(solicitor-general)이 되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법조계에서의 그의 진로를 꺾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1685년 찰스 2세가 사망했고,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2세는 1688년 명예혁명으로 곧 폐위되었다. 노스는 제임스 2세의 재임기간까지 법률직을 유지했지만,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즉위한 후 새 왕과 여왕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거부하여 선서거부자(non-juror)가 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커리어도 끝이 났다. 그가 34세였을 때의 일이었다. 그 후 그는 1690년에 노퍽(Norfolk) 주의 로엄(Rougham)으로 은퇴하여 죽기까지 40년 이상을 지방의 지주로 살았다.

¹³ 존 노스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사였고, 후에 트리니티 칼리지의 학장(master)이 되었다.

¹⁴ 노스는 헤일스 경의 이름을 언제나 's를 붙여서 적었다. Roger North, *The Autobiography of Roger North*, ed. A. Jessopp (London, 1887), p. 95.

노스는 로엄에서 지내면서 많은 글을 썼다. 그는 법, 음악, 농업, 물리, 건축, 역사, 도덕, 철학 등에 관한 3만여 장의 원고를 남겼는데,¹⁵ 그 가운데 농업과 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음에 틀림없다. 그의 생전에 두 권의 저작과 한 편의 소책자만이 익명으로 출판되었는데, 모두 농업과 토지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었던 점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다.¹⁶ 『젠틀맨 회계사』는 그 중 가장 마지막에 출판된 책이었다. 이 책은 지주들에게 토지의 운영과 관리에 복식부기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그 기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첸(Mary Chan)은 노스가 로엄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젠틀맨 회계사』를 썼다고 보았다.¹⁷

로저 노스는 농촌 지주로서 같은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저서를 출판했는데, 이는 이 책의 구성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젠틀맨 회계사』의 서두에 있는 5쪽의 서문과 이어지는 44쪽의 서술은 저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도입부에 해당한다. 이 도입부에서 그는 복식부기의 유용함과 가치를 역설하고 복식부기의 구성 및 원리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식부기를 이용한 토지 관리의 예시를 하기 전에 그는 복식부기의 원리를 서랍장에 빗대어 짧게 설명한다. 복식부기가 생소할 지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에게 친숙한 가구인 서랍장을 이용한 것이다. 노스는 서랍장의 서랍들에서의 물품의 이동을 비망록, 분개장, 원장의 형식으로 보여주었다.

그 후 본격적으로 복식부기를 이용한 토지 관리 방식을 서술하는 부분이 나온다. 어떻게 토지 경영을 복식부기로 관리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서술한 뒤 구체적인 예시가 이어진다. 이는 'J.S.의 토지'라고 이름 붙은 대토지의 회계 장부로, 여기에는 농업과

¹⁵ Mary Chan, "Roger North's Life of Francis North,"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New Series, Vol. 24, No. 166 (May, 1991), p. 191.

¹⁶ Parker, "Roger North," p. 33. 그의 생전에 출판된 다른 두 가지는 「어류와 양 어장에 관하여 (Discourse on Fish and Fish Ponds, 1683)」와 「토지등록을 위한 논의와 자료 (Arguments and Materials for a Register of Estates, 1698)」이다. 노스 가문의 형제들에 관한 전기는 그의 사후에 출판되었다.

¹⁷ Chan, "Francis North," p. 191. 첸은 노스가 노퍽에서의 농업에 관한 경험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고 썼다. 반면 그래스비는 이 책에 두들리 노스의 원장이 많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가사, 지주의 사생활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었다. 노스는 1709년 한 해의 기록을 생략 없이 실었다.¹⁸ 제시된 장부 기록은 비망록만 60여 쪽에 달한다. 노스는 이렇게 긴 예시를 그대로 실는 것에 대해 “예시가 너무 길고 원리 설명은 너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중략) 원리는 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고, 눈은 귀보다 나은 교사라고 생각된다” 라고 밝혔다.¹⁹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지주가 최상위 관리자로서 장부를 기록하고, 중간관리인들의 보고는 하위 장부로 지주의 장부 속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토지관리 회계 뒤에는 '제시를 위한 회계(rendering Accompt)²⁰'의 설명이 덧붙여있다. 제시회계는 앞서 설명한 복식부기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복식부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화한 것으로, 노스가 표지에서 이 책의 내용으로 꼽은 다섯 항목의 하나였다.²¹ 노스는 복식부기를 배워두면 직접 토지 관리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 점을 든다. 노스의 독자들은 관리나 관재인, 혹은 후견인 등의 직을 맡아 장부의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직무를 수행할 때 복식부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정당하고 올바른 장부를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복식부기를 모르면 필요한 자료를 모으지도 못 하거나, 혹은 자료를 모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나 법원에 제출하기에 적절한 양식으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노스는 이럴 경우 교활한 이들에게 이용당할 것을 우려한다.²²

마지막으로 용어집이 일종의 부록으로 본문 뒤에 첨부되었다. 이 용어집은 노스 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표지의 설명에서는 회계상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풀이한 용어집이라고 언급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단어들을 다수 포함했다. 즉, 책에 사용된

¹⁸ 토지관리에서 시작부분의 표기는 1708-9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장부는 시작 시점에서 소유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록한 후 1709년 1월부터의 일들을 적어나가고 있으므로 1709년의 장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¹⁹ [Roger North], *The Gentleman Accomptant* (London, 1721), p. 196. 본 글은 최종판본인 1721년의 3판을 바탕으로 한다. 노스의 세 판본은 거의 차이 없이 재판되었다.

²⁰ 또는 ‘Accompt rendered’ 나 ‘Accompt renderable’ 로도 쓰였다. 여기에 대비하여 젠틀맨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는 ‘Accompt kept’ 라고 표현되었다.

²¹ [North], *Accomptant*, p. 198.

²² *Ibid.*, p. 197.

용어들이나 일반적인 회계용어를 모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계와 상업, 금융 분야의 용어들을 두루 뽑아 정리한 것이었다. 노스는 각 용어들을 정의하기보다 설명하였고, 빈번히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 용어집은 노스가 내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의 대부분을 농촌 지주로 살았던 노스는 스스로 상업에 문외한이라고 하면서도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를 공부하고 또 다른 지주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이 방식을 알게 되었을까? 그는 복식부기를 알게 된 것에 대해 “우연히 사랑에 빠졌다” 라고 표현했다.²³ 그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두 가지 일화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작고한 대비(大妃)의 재무관이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난 후 대비의 요구와 물음에 잘 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비가 크게 만족했다는 일화이다.²⁴ 두 번째는 제임스 2세 때 세관에서 복식부기를 이용하면서 실수가 줄고 행정처리가 용이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이 일화들을 보고 관심이 생겨 복식부기를 공부한 후, 직접 자신의 작은 일과 타인의 큰 일들에 적용해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식부기를 배우고 사용하게 된 데에는, 작중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두들리 노스의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다. 노스의 셋째 형인 두들리 노스는 성공한 교역상이었고, 당연히 자신의 사업과 재산 관리에 복식부기를 이용했다. 『젠틀맨 회계사』의 서문에서 거론한 일화들도 두들리의 생애를 연상시킨다. 두들리는 1680년까지 레반트 무역에 종사하며 특히 콘스탄티노플과 스미르나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다 부유한 상인이 되어 영국에 돌아왔고,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하의 세관과 재무부에서 일했다. 노스가 『젠틀맨 회계사』를 시작하며 든 세관의 일화는 두들리가 세관에서 일하며 복식부기를 도입한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두들리는 복식부기에 뛰어난 회계사였다. 로저는 두들리 노스의

²³ *Ibid.*, p. i.

²⁴ 찰스 2세의 왕비였던 캐서린일 것이다. 캐서린은 찰스 2세의 사망과 명예혁명 후에도 영국에 남아있다가 1699년 포르투갈로 돌아가 1705년에 사망했다. 제임스 2세의 두 번째 왕비였던 메리는 『젠틀맨 회계사』가 처음 발간되고 4년 후인 1718년에 사망했으므로 이 책이 저술되고 발간된 시기에는 생존해 있었다.

전기를 쓸 때 회계 관리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를 능가하는 사람은 영국에 없다고 썼다.²⁵ 두 형제는 각별히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1685년 프란시스 노스의 사후에는 두들리, 몬태규, 로저 세 형제가 프란시스의 관재인이자 그의 세 아이들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 1691년에 두들리가 사망하자 로저는 깊은 슬픔을 표했으며, 두들리의 관재인으로서 그와 공동으로 맡았던 프란시스의 재산과 함께 두들리의 재산도 관리했다. 이때 로저와 몬태규는 두들리가 남긴 회계장부도 계속해서 기록했다.²⁶

그래스비는 이런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젠틀맨 회계사』의 일부가 두들리 노스의 미출판 작업을 기반으로 했고, 두들리의 원장을 상당부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²⁷ 파커는 그래스비가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래스비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평했다. 로저가 젠틀맨들에게도 복식부기가 유용함을 주장한 것과 두들리가 세관에서의 복식부기 이용을 주장한 것이 유사하고, 둘 다 경험 있는 유연집행인이었다는 것이 파커의 근거였다.²⁸ 『젠틀맨 회계사』에 등장하는 'J.S.의 토지'가 실제로 누구의 소유지인지는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친형인 두들리가 복식부기로 사업과 토지를 관리한 사례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직접적인 경험도 쌓을 수 있던 것이 로저의 저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노스 형제들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지주층과 상업세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스 가의 여섯 형제들 중 작위를 계승한 첫째를 제외하면, 둘째 프란시스와 여섯째 노스는 법률가, 셋째 두들리와 다섯째 몬태규는 교역상, 넷째 존은 대학의 교사가 되었다. 두들리와 몬태규는 상인이 된 후에도 대부분의

²⁵ Grassby, *Gentleman in Trade*, pp. 263–264.

²⁶ [North], *Accomptant*, p. 264.

²⁷ Grassby, *Gentleman in Trade*, p. 12. 그러나 『젠틀맨 회계사』에 실린 복식부기 장부가 익명처리 외의 변경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두들리의 장부일 가능성은 낮다. 작중의 장부에 표기된 날짜는 1709년이고, 두들리는 1691년에 사망했다. 따라서 이 책의 장부는 노스가 자신의 토지를 관리한 장부이거나 두들리의 사후에 노스가 관리했던 두들리 토지의 장부였을 것이다.

²⁸ Parker, “Roger North,” pp. 46–47.

형제들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다. 상인들의 세계와 지주들의 세계는 분명한 구분이 있으면서도 소통할만한 거리에 있었다. 상인과 지주의 가치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로저의 『젠틀맨 회계사』에서 사용되는 복식부기에 두들리의 영향이 선명한 만큼, 두들리의 『교역론』의 서문과 일부에 로저의 영향이 묻어난다는 연구가 이를 잘 말해준다.²⁹

2. 지주층을 위한 회계안내서

노스는 책의 제목에서 '젠틀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젠틀맨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었다. 젠틀맨은 명료하게 규정된 직위와 신분을 뜻하지 않았고, 계층으로서도 상하의 경계가 불분명했다.³⁰ 그러나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는 젠틀맨이라고 불릴만한 누구나가 아닌, 특정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제한된 범주를 위한 글이었다. 다른 많은 안내서들에서와 같이, 노스도 책의 예상 독자들을 표지에 명시했다. 책의 표지뿐만 아니라 서문과 본문 중에서도 대상이 될 독자들의 조건이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그가 이 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한 젠틀맨들은 어떤 이들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젠틀맨 회계사』의 제목과 그 부연설명을 주목해 보도록 하자.

젠틀맨 회계사: 혹은, 흔히 상인회계라 불리는 대변과 차변을 쓰는 장부의 불가사의를 풀고 그것을 잉글랜드의 귀족과 젠틀리의 관심사들에 적용하는 글.

1. 젠틀맨들이 그들 자신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할 때의 대단한 이점, 그리고 젠틀맨을 위한 지침들 2. 회계에 무지할 경우 지주들에게 닥치는 파멸 3. 국가의 공직에 임명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회계 지식의 유용성 4. 은행, 주식과 그 외에 대한 설명과 주식거래에서의 사기 간파 5. 회계언어에서 특정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의 짧고 쉬운 용어집.³¹

²⁹ Grassby, *Gentleman in Trade*, pp. 231, 252.

³⁰ Earle, *The making*, p. 5.

³¹ [North], *Accomptant*, 표지.

여기에서 ‘귀족과 젠트리’가 노스의 고려대상으로 적시되어 있다. 제목에 이어 제시된 책 내용의 요약 목록 중에는 ‘지주들(Men of Estates)’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본문에서도 토지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노스의 대상 독자층이라는 점이 여러 번에 걸쳐 언급되었다. 여기에 더해 “토지와 명예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에 따라 공무를 맡게 될지 모르는, 혹은 맡아야 할” 이들이 그의 독자들로 상정되어 있다.³² 종합하면 노스의 『젠틸맨 회계사』가 소통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단순히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전통적인 지주들을 가리킨다. 성공한 상인들도 토지에 부를 투자하거나 토지를 사서 은퇴할 수 있었으나, 토지와 명예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자연히 공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젠틸맨 중에서도 상업에 종사하다 은퇴 후 토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은 대개 교역상이었고, 복식부기는 교역상의 소양에 속했다.³³

전통적 지주들을 대상으로 한 『젠틸맨 회계사』는 당시 크게 발전해 있던 출판시장을 통해 지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근대 영국에서는 수많은 출판물들이 인쇄되어 활발히 유통되었다. 또한 이 역동적인 출판계에 관심 깊은 독자층도 폭넓게 존재했다. 특히 신문이나 소책자, 브로드사이드(broadside) 등의 형태로 침예한 설전이 오갔고, 그 집필자들과 청중들로 구성된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독자들에게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들도 이 분주한 출판계의 한 권에서 꾸준히 출판되었다. 안내서들의 주제는 정원 가꾸기부터 작시, 음악, 화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노스의 『젠틸맨 회계사』와 같은 상업안내서도 여기에 속했다.³⁴

이 가운데 회계는 상업안내서 다수가 다루었던 대표적인 주제였다.³⁵ 여기서의 회계는 주로 복식부기였지만, '복식부기(double-entry)'보다는

³² *Ibid.*, p. 5.

³³ 캠프에 따르면 교역상들에게 복식부기 회계는 필수적 지식이었다. R. Campbell, *The London Tradesman*, (London, 1747), pp. 292-293.

³⁴ Glaisyer, *Culture of Commerce*, p. 100.

³⁵ 상업안내서가 다루는 내용도 광범위하여, 이 장르에는 상업 연산(commercial arithmetic) 교본, 무역업자를 위한 다국어사전, 글쓰기 안내서, 상법 해설서, 상업 연감(年鑑), 항해관련서적, 상업 회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상업에 관한 안내서들이 포함되었다. *Ibid.*, p. 103.

흔히 '상인회계(Merchant Accompts)' 또는 '대변과 차변을 쓰는 회계(Accompts by way of debtor and creditor)³⁶'라고 불렀고, '정규회계(Regular Accompts)' 혹은 '이탈리아 방식에 따른 회계(Accompts after the Italian Method)³⁷'라고도 했다. 대부분의 상업안내서들은 교역상이나 소매업자(tradesman)와 같은 상인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소수의 회계 안내서들은 상업 세계 밖의 특정 집단을 주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그 중 지주들과 그 하인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안내서가 하나의 하위 장르로 존재했다.

토지관리를 위한 회계안내서는 소수이나마 꾸준히 출간되었고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하나의 구분된 장르로 자리잡았다.³⁸ 대표적인 사례로 토마스 리처즈(Thomas Richards)의 『젠틀맨의 감사(The Gentleman's Auditor, 1707)』나 찰스 스넬(Charles Snell)의 『지주들을 위한 회계(Accompts for landed-men, 1711)』를 들 수 있다. 또 스스로 다른 지주의 토지 관리인이라고 밝힌 조지 클러크(George Clerke)는 『토지관리인의 필수안내서(The Landed-Man's Assistant or, the Stewards Vade Mecum., 1728)』를 썼다. 토지 관리를 위한 회계안내서의 첫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 리셋(Abraham Liset)의 『회계사의 밀실(Amphithalami, or, the Accomptants Closet, 1660)』로 17세기의 작품이었다.

그러므로 토지운영에 회계장부를 도입한다는 것은 노스가 처음 주장한 개념이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토지관리인(steward, bailiff)' 이라 부를만한 중간관리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토지의 관리상황을 장부로 기록하는 관행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물론 그때에는 복식부기 장부가 아니라 '의무-이행 장부(Charge-Discharge account)'라고 불리는 단식부기 장부가 사용되었다. 리틀턴에 따르면 영국은 이탈리아의 복식부기가 16세기경 북유럽에 전파되었을 때 이미 독자적인 장부작성법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유럽국가였고, 그 시기는 중세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³⁹

³⁶ 혹은 'Accompts by way of debtor and creditor'

³⁷ 혹은 'Italian bookkeeping'

³⁸ 꼭 복식부기였던 것은 아니다. Glaisyer, *Culture of Commerce*, p. 117.

³⁹ 리틀턴은 기존의 영국식 장부도 이탈리아식 복식부기가 전파되자 점차 복식부기로 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는 많은 부채지주들이 생겨났고, 토지를 경제적으로 경영하려는 인식도 높아졌다.⁴⁰ 지대 징수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토지 운영과 관리를 하는 전문 중간관리인들이 늘었는데, 브라이어에 따르면 회계는 토지관리인의 중요한 의무이며 또한 지주와 토지관리인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었다.⁴¹ 네이피어(Christopher J. Napier)는 회계가 토지관리인들에게는 다양한 일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고 지주들에게는 토지관리인들을 통제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⁴² 이때 토지관리에는 여전히 단식부기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복식부기도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었다.⁴³

실제로 복식부기를 통한 토지관리를 설명한 안내서들이 등장했다. 앞서 언급한 저작들 중 아브라함 리셋의 『회계사의 밀실』과 리처즈의 『젠틀맨의 감사』도 일종의 복식부기 안내서였다.⁴⁴ 클러크의 『토지관리인의 필수안내서』에서도 부분적으로 복식부기 양식이

뀌어 갔지만, 기존 방식의 영향이 회계용어 등에 흔적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전의 ‘의무-이행 장부’에서는 중간관리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와 그 이행을 기록하는 주체로서 장부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주체의 차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의 차변과 대변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 A. C. Littleton, “Italian Double Entry in Early England,” *The Accounting Review*, Vol. 1, No. 2 (Jun., 1926), pp. 60–71.

⁴⁰ R. A. Bryer, “Farmers’ Accounts and the ‘Agrarian Revolution’ in England: A Research Agenda,” *Proceedings of the Sixt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Accounting Conference* (University of Manchester, 2000c), p. 26.

⁴¹ *Ibid.*, p. 32.

⁴² Christopher J. Napier, “Aristocratic Accounting: the Bute Estate in Glamorgan 1814–1880,”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21, No. 82 (1991), p. 164

⁴³ Bryer, “Farmers’ Accounts,” pp. 26–35.; G. A. Lee, “The Francis Willughby Executorship Accounts, 1672–1682: An Early Double Entry System in England,” *Accounting Review*, Vol. 5, No. 3 (July 1981), pp. 539–553; David Oldroyd, “Through a glass clearly: management practice on the Bowes family estates c.1700–70 as revealed by the accounts,” *Accounting, Business & Financial History* 9:2 (July, 1999), pp. 175–201; Christopher J. Napier, “Aristocratic Accounting: the Bute Estate in Glamorgan 1814–1880,”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21, No. 82 (1991), pp. 163–174. 이 중 17세기 말 노팅햄셔(Nottinghamshire)에서 프란시스 윌러비(Francis Willughby) 토지의 유산관리에 적용된 복식부기는 리셋의 책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윌러비의 사례는 남겨진 복식부기 장부들 중 토지에 복식부기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⁴⁴ 리처즈의 『젠틀맨의 감사』는 노스도 한 부 소장하고 있었다. Parker, “Roger North,” p. 36.

시도되었다. 로크는 『교육론』에서 “상업에서 딱 한 가지, 그들[부모들]이 고려한다면, 그들의 아들들이 절대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있다. 복식부기는 젠틀맨이 토지를 얻게 해줄 기술은 아니나, 그가 가진 토지를 관리하는 데에 이보다 유용하고 효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복식부기를 권했다.⁴⁵ 단식부기가 단순히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이라면 복식부기는 총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⁴⁶

지주들과 그 하인들을 위한 회계안내서라는 장르가 출판시장에 형성되었고, 복식부기도 부분적으로 토지 운영에 도입되고 있었다. 영리적 토지운영에 대한 개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갔고 전문 토지관리인도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로저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가 지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들은 런던의 서점에서 각종 안내서들을 구할 수 있었고, 런던 증권거래소(the Royal Exchange) 입구에는 상업안내서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있었다. 런던 밖에서도 옥션이나 카탈로그 주문을 통해 책을 구할 수 있었으며, 지방의 서점들도 있었다.⁴⁷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에 대한 지주들의 접근경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젠틀맨 회계사』가 어느 정도 판매되었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정확히 측정할 길은 없다. 그러나 이 책이 1714년 초판된 후 두 판을 더 찍었음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판매고는 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1717년에 출판된 회계안내서의 서문을 쓴 마틴(J. Martin)은 노스의 책이 지주들과 모든 계층의 사업가들에게 복식부기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했고⁴⁸, 1718년 에딘버러에서

⁴⁵ John Locke,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and Of the Conduct of the Understanding*, ed. Ruth W. Grant and Nathan Tarcov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6), p. 157.

⁴⁶ 일반 회계안내서 중에서는 스테펜 몬티지의 『알기 쉬운 복식부기(Debtor and creditor made easie, 1682)』와 제임스 도슨(James Dodson)의 『회계사 혹은 장부작성 방법(The accountant, or, the method of bookkeeping, 1750)』에 토지관리 회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R. H. Parker, and B. S. Yamey, ed. *Accounting History: Some British Contrib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10.

⁴⁷ Glaisyer, *Culture of Commerce*, pp. 106-107.

⁴⁸ *Ibid.*, p.117에서 재인용. 원문은 킹(Thomas King)의 회계안내서에 붙은 마틴의 서문이다. J. Martin, ‘To the reader,’ in Thomas King, *An exact guide to book-*

출판된 알렉산더 말콤(Alexander Malcom)의 『연산과 회계에 관한 새로운 논고(A new treatise of arithmetic and book-keeping)』의 서문에서도 노스의 책이 언급되었다.⁴⁹ 후자의 사례를 보면 노스의 책이 잉글랜드 밖으로도 퍼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18세기 스코틀랜드가 복식부기에 관한 저술에서 강세를 보였고 말콤이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저자였음을 고려하면 『젠틀맨 회계사』가 결코 인지도 없이 묻혀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⁵⁰ 이 저서는 지주들에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토지 운영을 강조한 당대의 큰 흐름을 전적으로 대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한 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keeping, (London, 1717)

⁴⁹ *Ibid.*, p.118에서 재인용. ‘노스가 이 주제(회계)에 관해 글 쓰는 것을 낮은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언급이었다. 책은 Malcom, Alexander, *A new treatise of arithmetic and book-keeping*, Edinburgh, 1718.

⁵⁰ B. S. Yamey, H. C. Edey and H. W. Thomson. *Accounting in England and Scotland: 1543-1800* (London: Sweet & Maxwell, 1963), pp. 170-173에서는 18세기 스코틀랜드가 회계 분야에서 보인 강세를 ‘스코틀랜드의 우세(Scottish Ascendancy)’ 중의 하나로 표현했다. 말콤의 ‘연산과 회계에 관한 새로운 논고’는 스코틀랜드에서 다섯 번째로 발행된 복식부기 회계서였다. 메팜은 스코틀랜드 복식부기 저작의 가장 중요한 네 저자 중 하나로 말콤을 꼽았다. 스코틀랜드 복식부기 저자들의 영향력은 스코틀랜드 내에서만이 아니라 영국 다른 지역들과 미국에까지 미쳤다. Michael J. Mepham, “The Scottish Enlightenment and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The Accounting Historians Journal*, Vol. 15, No. 2 (Fall 1988), p. 152.

Ⅲ. 토지관리를 위한 복식부기

이제 『젠틀맨 회계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당대 지주들의 사고 방식의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자.

1. 복식부기의 유용성

복식부기가 토지에 도입되는 경우가 이미 존재했다라도 복식부기는 여전히 대부분의 지주들에게 생소한 기법이었다. 이들에게 복식부기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즉, 복식부기의 개념과 장부작성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한편, 지주들의 심리적 거리감도 극복해야 했다. 노스는 복식부기가 상업적인 기법임에도 지주들에게 크게 유용하고 배울만한 가치가 있음을 납득시키기 위해 복식부기의 효용과 기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따라서 장문의 설명과 상세한 회계 예시를 담은 이 회계안내서는 여타의 안내서들보다 훨씬 긴 분량으로 저술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유사 저작들과 비교해 보아도 스넬과 리처즈의 글은 모두 30쪽 내외였고, 클러크의 회계안내서도 50쪽 가량이었던 반면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는 300여 쪽에 달했다. 『젠틀맨 회계사』의 설명 부분은 분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유사 회계안내서들의 서술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젠틀맨 회계사』는 지주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 복식부기의 방법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되었다.⁵¹ 지주들이 상인의 도제가 되거나 교습소에 등록하여 회계를 배울 가능성은 낮았다. 그러므로 이 책 앞부분의 서술부는 노스가 자신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유일한 창구였다. 노스는 여기에서 복식부기의 유용성을 극구 강조한다. 복식부기를 대하는 노스의 태도는 상당히

⁵¹ 다른 많은 회계안내서들은 설명보다 회계장부를 제시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스넬의 『지주들을 위한 회계』에는 설명은 전혀 없이 회계만 제시되어 있었다. 그가 회계사이면서 교사를 겸했던 것으로 미루어, 이 책은 학습자가 교본을 가지고 독학하는 상황이 아닌 강습을 받는 환경에서 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젠틀맨 회계사』와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 클러크의 『토지관리인의 필수 안내서』는 설명과 구체적인 토지관리 장부의 예시가 다 나타나지만 설명은 훨씬 적다.

학문적이면서도 유희적이었다. 그는 복식부기 학습이 만족감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여기고 “은퇴했더라도 재간 많은 젠틀맨이라면 누구나 이 기술을 일종의 인간적인 배움으로 알아들 만하다” 고 주장한다.⁵² 그에 따르면 복식부기를 배우다가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그 시간과 노력은 의미 있을 것인데, 그럼으로써 얻어진 회계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스스로 발전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무엇을 계산하든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만족스럽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⁵³ 그는 복식부기가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순수하게 탐구하거나, 호기심을 가지거나, 경탄할 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⁴

그러나 복식부기 학습을 통한 지적 즐거움은 복식부기의 기법으로서의 유용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사적인 면에서 그의 관심사에 관한 정기적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즐거움을 찾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나, “정기적으로 올바르게 기록되는 회계장부의 아름다움”, “감탄할만한 용도” 와 같은 표현들이 이를 확인해준다.⁵⁵ 노스에 따르면 복식부기를 공부하는 이는 “정확하고 정직한 장부에 대한 열의가 있어 정기적인 장부기록의 피곤함을 감내할 수 있어야” 했다. 이것은 “즐거움이 없으면 잘 해낼 수 없는 일” 이었다.⁵⁶

복식부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는 미감(美感)이나 지적 자극을 넘어서 실용성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다. 노스는 복식부기의 도입이 작고한 대비의 재무관리나 세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유용했다는 일화로 시작하여, 정부의 공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젠틀맨들의 사적인 일에도 복식부기가 많은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식부기를 알아두면 단지 지식으로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젠틀맨이 맡게 될 만한 직무들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며, 직접 토지에 적용하여 장부를 작성할 경우 매우 큰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에서의 복식부기 사용을 중심으로 두면서도 노스는 여러 층위에서 복식부기의 기법과 지식이 쓰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⁵² [North], *Accomptant*, p. 5.

⁵³ *Ibid.*, p. 6.

⁵⁴ *Ibid.*, p. 1.

⁵⁵ *Ibid.*, pp. 5-6, 8.

⁵⁶ *Ibid.*, p. 40.

노스가 주장하는 복식부기의 활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간접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인을 둘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단식부기 토지관리를 복식부기로 바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하인들 중 하나에게 장부작성을 일임하면 언제든지 장부를 가져오게 하거나 잔금을 정산하게 하여 토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삶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서술되었다. 토지관리인과 같은 중간관리인들의 장부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⁵⁷ 복식부기가 토지 운영과 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식부기의 장점은 젠틀맨들이 직접 부기를 작성할 때 최대화된다는 것이다. 노스는 궁극적으로 젠틀맨이 직접 복식부기를 기록하며 토지관리에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책 내용의 대부분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젠틀맨의 복식부기 장부를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젠틀맨이 직접 복식부기를 작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은 가진 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손해를 보거나 속임수에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노스에 따르면 젠틀맨은 어떤 악덕 자체를 간과해서가 아니라 장부에 무지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았고, 눈에 보이는 비용이 없었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속아넘어가 큰 토지를 순식간에 잃게 될 수 있었다.⁵⁸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자가 ‘속임수의 방지’라는 측면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스는 복식부기 장부가 시간 순으로 기록되고, 문제가 있더라도 기입한 것을 지워 수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처로 조정되므로, 함부로 변경하거나 속일 수 없다고 그 원리를 설명했다.⁵⁹ 매 거래가 이중으로 기입되었고 여러 장부들이 서로 연동되어, 최종적인 대변과 차변의 대조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기도 용이했다.⁶⁰ 그가 가진 중요한 문제의식은 급변하는 경제적 상황에서 지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금전적 관심과 복식부기를 통한 토지관리

⁵⁷ *Ibid.*, pp. 77-78.

⁵⁸ *Ibid.*, pp. 61-64.

⁵⁹ *Ibid.*, p. 4.

⁶⁰ *Ibid.*, pp. 8, 18-19.

『젠틀맨 회계사』가 복식부기의 효용에 대해 속임수에 대한 방지와 재산의 보호라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이익 추구 측면을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노스의 책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모든 거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장부에 꼼꼼히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글라이셔는 복식부기를 이용할 것을 원하는 노스의 태도가 금전적 이윤추구 측면에서는 소극적이었다고 평했다. 그에 따르면 노스의 관점에서 복식부기 회계는 명예를 지키거나 후세를 위한 것이었다. 빚을 지지 않는 매우 뛰어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정도가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에 가장 근접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다.⁶¹ 그러나 『젠틀맨 회계사』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손익과 영리에 관해 결코 소극적이지만은 않은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노스가 말하는 젠틀맨의 장부는 기존의 중간관리인들의 장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의 장부로, 작성자는 중간관리인들로부터 받은 보고에 더하여 자신이 직접 복식부기를 통해 관리를 강화했다. 지주는 때때로 중간관리인들에게 맡겨진 토지와 가사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확인하거나 처리하여 장부에 추가했고, 자신의 사생활에서의 수입과 비용도 꼼꼼히 기록해 넣었다. 이 장부에는 'J.S.의 토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들이 지주의 손을 거쳐 기입되었다. 이를 통해 저자가 가진 다양하고 세심한 이윤추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소작인들을 통해 얻는 금전 지대는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토지 내에서의 산물(産物)들도 다방면으로 상품화 되었다. 이 토지의 지주는 곡식과 가축을 판매했고⁶², 벽돌을 만들고 목재를 채벌해 팔았다. 가내에서도 치즈와 버터, 기름을 생산하여 여러 번 판매한 기록이 있다. 5월에는 회계원 A. K.를 통해 L 지역의 토지(an Estate at L)을 구매했다. 이 토지는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주는 9월에 직접 L 지역에 다녀와 세 명의

⁶¹ Glaisyer, *Culture of Commerce*, p. 119.

⁶² 가장 규모가 큰 판매기록은 양 600마리를 판 거래이다.

소작인들로부터 첫 지대를 걷었다.

이 장부의 지주는 중간관리인이 따로 관리하는 부문의 여러 일들도 부분적으로 직접 다루었다. 그는 때때로 지대를 직접 수취하고, 대부분의 돈을 회수하고, 벽돌과 목재 등을 판매한 대금과 잔금을 받고, 물품 구매대금과 사용인들의 임금을 지급했다. 가내에서 소비된 가축과 잡다한 비용도 일부는 가사관리인의 장부를 통하지 않고 곧장 지주의 장부에 기록되었다. 때때로 이 장부의 기록자는 중간관리인을 통해 처리되어 보고된 일들도 부분적으로 다시 풀어 서술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자의 비망록에서 그는 “새 안장과 가구 등의 물품 비용을 내가 지불” 한 것으로 8파운드 7실링의 지출을 기록한 후, “가사관리인의 지난 사분기 장부에서 주방의 폐기물, 버터와 치즈의 판매로 총 7파운드 16실링 8펜스의 수입이 있었고 식량, 하녀들의 임금, 주방에서 쓰는 리넨 등과 자루걸레, 빗자루 따위의 비용으로 26파운드 6실링 9펜스의 지출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고 옮겨 적었다. 주방의 사소한 비품 구입 내역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일상적인 일들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토지와 가내에서의 수입과 지출 항목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주의 사생활도 토지와 가사일들과 함께 복식부기 장부로 관리되었다. 사생활의 일부는 위의 예시에서의 안장과 가구의 대금지불과 같이 가사관리인이나 회계원의 일과 중복될만한 내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주는 새로 구입한 L 지역의 토지로 지대를 수취하러 갔을 때의 왕복 여정 비용이나, 여러 차례의 카드놀이(Piquet, of diverse)⁶³에서 판 돈도 곧장 장부에 기록했다. 그 외 사소하게 지출된 비용과 기타 비용들도 합하여 정리했다. 이러한 항목들은 온전히 개인적인 사건들의 구성과 기록이었다. 이 항목들은 분개장에서 각각 잡계정(Sundry Accompts)의 대변과 차변으로 정리되어 월장의 현금계정(Cash Account)으로 옮겨졌다.⁶⁴

⁶³ 두 사람이 32매의 카드를 가지고 하는 카드놀이의 일종.

⁶⁴ 장부를 통해 사생활을 관리하는 모습은 다른 회계안내서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회계안내서들 중 스넬의 『지주들을 위한 회계』에서도 도 서구매비용, 이발비용 등을 기록하고 있다. Charles, Snell. *Accompts for Landed-Men* (London, [1711?]).

내용뿐 아니라 복식부기 형식에도 기입자의 경제적 관심이 반영되었다. 복식부기의 계정설정은 작성자의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노스는 젠틀맨들에게 필수적인 장부로 복식부기의 기본인 비망록, 분개장, 원장 외에 현금출납부⁶⁵를 기입할 것을 권장했다. 현금출납부는 여러 거래 중에서도 현금에 관련된 것만을 모은 것이다. 노스는 이에 대해 “교역상, 젠틀맨, 그리고 다양한 항목에 신경 써야하는 다른 이들의 경우, 거래의 많은 부분이 현금일 것이므로” 현금출납부를 따로 만드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⁶⁶ 토지관리 예시에서도 비망록과 현금출납부를 작성한 후, 두 가지를 바탕으로 분개장을 만들고 원장을 정리했다.⁶⁷

노스가 제공하는 전체 계정의 색인에서는 지대와 산물을 통한 수입 극대화 이상의 금전적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지주는 화폐재산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고, 일부의 운용은 전문가에게 맡겨졌다. 전체 원장의 계정들은 다음과 같았다. 사유 토지, 현금, 사장 재고(死藏在庫), 가사, 농업, 농장N, 방목과 낙농, 지대, 마구(馬具), 양떼, 아홉 명의 인물들 각각과 회계원 A.K., 금전 이자, 가사관리인 수중의 현금, 토지관리인 수중의 현금, 부수적 사건들, [농장]N의 토지관리인 수중의 현금, 새로 구매한 L의 토지, 세 명의 인물들의 계정, 그리고 손익계정과 잔고계정이었다.⁶⁸ 이 중 손익계정과 잔고계정은 복식부기의 기본적인 양식에 해당된다.⁶⁹ 그러나 원장의

⁶⁵ 지주층을 위한 다른 회계안내서들 중 클러크의 『토지관리인의 필수안내서』에도 현금출납부가 포함되었다. 『토지관리인의 필수안내서』의 표지에서는 책 내용의 설명 중에서도 현금출납부의 존재를 대문자로 눈에 띄게 표시했다. 이 책에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입차 현황 관리부(A Survey or Rental-Book)와 현금출납부, 수입과 지출의 요약표, 각 소작인들 계정의 의무-이행 기록표가 실렸다. 이 중 현금출납부는 일종의 복식부기 장부였다. George, Clerke. *The Landed-Man's assistant or, the Stewards Vade Mecum* (London,1728).

⁶⁶ [North], *Accomptant*, p. 13.

⁶⁷ 서랍장의 예시는 기본적인 복식부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비망록, 분개장, 원장만으로 구성되었다.

⁶⁸ [North], *Accomptant*, pp. 116-117.

⁶⁹ 손익계정은 개별 계정들의 끝에서 각각의 거래로 인한 전체 자산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손익을 정리해주는 매개 계정이다. 잔고계정은 전체 계정들의 최종 잔고를 통합하여 비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종합 계정이다.

일반 계정은 작성자의 편의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각 중간관리인들의 계정은 그들이 보유한 현금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개인의 머리글자가 붙은 계정의 주인들은 대부분 소작인들이 아니라 지주와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이들이었다. 또한 예시된 토지의 지주는 그의 금전적 문제들의 처리를 도와줄 회계원(Cashier)을 런던에 두고 있었다. 이 회계원은 지대 수취부터 거래 관계까지 화폐가 오가는 다양한 업무를 도왔다.

『젠틀맨 회계사』의 장부는 토지와 가사에서의 이윤을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주가 파악하고 관리하려 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주 자신의 사생활도 통제 대상으로 장부에 기록되었다. 장부 안에서 이 모든 것은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다루어졌다. 적어도 이 자료를 보던 지주는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데 긍정적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자기 사업과 삶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통제하고자 했다.

3. 경제적 사고의 변화

복식부기는 분명 지주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법이었지만, 지주가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했다. 복식부기가 꾸준함과 꼼꼼함을 요구하는 기법이었기 때문이다. 복식부기 장부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주는 복식부기를 이해해야 할뿐만 아니라 토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했고, 각 사항들을 장부에 기입하고 정리해 넣기 위해 정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노스는 복식부기의 이와 같은 조건들이 그의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의식했다. 그러나 그는 복식부기의 사용이 가져올 변화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한다. 비망록과 현금출납부가 필수적임을 설명한 후 노스가 소개한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작업에 매우 많은 시간이 들고, 요구를 받은 것도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어찌서 자유롭게 사는 이가 스스로 장부의 노예가 되어 고역을 치러야 하느냐는 이의에 대해 나는 실제의 일화를 통해 답하겠다. 한 나이든 성직자에게 농촌의 한 부인이 불평하기를, 그녀의 남편이 공유지를

사유화하고 제재를 가하는 계획에 이상스럽게도 시간을 쏟으며, 그의 계획에 막대한 노력을 들이고, 서로 뒤섞인 자유보유지와 등본보유지들을 위해 삼십 년, 사십 년 간 값을 치르는 데, 이것이 아주 이상한 게 아닌가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아아 부인, (하고 그 나이든 젠틀맨이 말했다.) 그것이 그가 런던에서 도박을 하고, 매춘부들과 어울리고, 술을 마시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⁷⁰

사실 시간과 돈을 나태하고 향락적인 일에 써버리는 것이야말로 젠틀맨의 덕목이자 조건이었다.⁷¹ 17세기에는 도시 젠틀맨의 등장으로 농촌 젠틀맨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젠틀맨들이 생겨났고 젠틀맨의 기준은 점차 개인의 덕목과 태도를 기준으로 하는 유연한 것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원래 젠틀맨들은 높은 신분을 타고 나서, 지방의 행정과 군사적 의무에 참여하고,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다양하나 전문적이지는 않은 인문교육을 받고, 돈을 쓰는데 후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었다. 젠틀맨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신사적 가치란 이윤을 우선적 목표로 추구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에 개입하지 않으며, 시간적 여유와 부를 바탕으로 여가와 사교를 누리는 데에 있었다.

노스는 이윤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추구하라거나 길고 고된 노동을 요하는 일에 직접 뛰어들어서라도 돈을 벌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을 향락보다 나은 것으로 여긴다는 점은 분명 이전의 지주들과는 현격히 다른 사고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근면하고 성실한 작업은 재산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복식부기는 지주의 경제적 상황을 세세하게 알게 해주었다.

지주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일상적 일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노스의 주장도 이와 관련된다. 소사계정(小事計定, small accompts)을 기록할 것을 권하면서, 그는 빌려준 돈이나 연금, 지대와 같은 중대한 일들뿐만 아니라 하인들, 노동자와 건축업자와 같은 가난한 이들을 상대하는 사소한 일들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그는 지주가 이런 일까지 직접 관리해야 하는가

⁷⁰ [North], *Accomptant*, p. 94–95.

⁷¹ Earle, *The making*, p. 6.

하는 물음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면 가난한 이들을 다루는 것은 하인들의 일이고 주인은 그들로 인해 머리를 썩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귀하여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으며, 그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략) 어떤 상태나 자질로 인해서도 그의 모든 금전적 관심사들에 관한 소사계정⁷²을 작성하는 것이 면제될 수는 없다. (중략) 그것[복식부기]이 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 가장 탁월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직접 복식부기로 사소한 일들까지 파악하고 관리하면 속임수를 당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여기에서 지주가 경제적 이해에 매우 예민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속임수와 실수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피하고자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상태를 바탕으로 결국 이윤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노스는 “토지를 가진 젠틀맨이 그의 수익(revenue)을 극대화하고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복식부기를 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⁷³ 그리고 이어서 복식부기가 잡다한 관심항목들을 관리하고 속임수를 방지하여 재산을 잃지 않을 수단이라고 언급하며, 복식부기를 잘 이용했을 때 그 자신과 후대에 다 도움이 된다고 마무리한다. 이 자료에서 토지를 보존한다고 할 때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경제적인 고려가 들어있다. 토지는 지주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 수익을 크게 늘리는 ‘자본’의 의미를 띤다. 그리고 삶의 방식 또한 여기에 맞춰 변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자신의 토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⁷² 원문은 ‘보관용의 확인계정(Cabinet Check-Account)’이다. 본문 중 소사계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앞서 노스는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작은 일에서도 그들과의 거래를 기록하고 확인하기 위한 장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표현을 다 사용했다.

⁷³ [North], *Accomptant*, p. 62.

기록하여야 하며, 그런 정보에 맞춰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향락적인 생활보다 ‘재산의 관리’와 ‘자신의 삶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고려되고 권장된다는 것은 가치관 또한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젠틀맨 회계사』는 이윤과 손실, 관리의 개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꼼꼼한 기록과 재산관리의 가치를 여가와 소비보다 높였다는 점에서 당대의 변화를 담고 있다. 무분별한 열의로 부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생활과 활동을 계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태도가 생겨났다는 것이 중요하다.⁷⁴

애플비(Joyce O. Appleby)는 자본주의의 등장에 앞서 자본주의적 경제 관념이 발달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시장참여자로서의 개인은 17세기 말을 지나며 영국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여러 출판물들을 통해 경제에 관한 공적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했다. 지주들을 위한 회계안내서인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의 등장은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⁷⁵ 또한 이 자료는 상업의 영역이 아닌 농촌의 토지에서도 새로운 경제적 사고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농촌세계의 일상에서도 경제적 면면들을 파악하여 통제하고 손익을 따져 결정을 내리려는 사고가 확산된 것은 영국의 경제사회적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이 점에서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는 당대의 의미 있는 정신적 변화를 증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⁷⁴ 이 같은 개념들은 근대의 경제적 합리성과 자본주의 발달을 연관 짓는 일련의 연구들을 연상시킨다. 근래에 재조명되고 있는 이 주제의 연구자들 중 원점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소위 '쾨바르트 가설(Sombart thesis)'에서 복식부기는 경제적 합리성을 향한 네 가지 변화에 작용했다. 다시 말해 복식부기가 자금자족을 넘어 이윤이라는 목표가 추구되고, 엄정한 계산에 기반한 이윤추구가 가능해지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조직할 수 있게 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지는 데에 중요했다는 것이다. 원점은 '쾨바르트 가설'의 대표적인 비판자인 야미의 연구를 다시 반박하기 위해 근대 복식부기 저작들을 통해 복식부기의 기능을 고찰했다. 그의 연구 중에는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도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복식부기의 기여를 증언하는 한 사례로 활용되었다. James O. Winjum, "Account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An Accountant's View,"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9, No. 2 (Autumn, 1971), pp. 333-350.

⁷⁵ 조이스 애플비, 『가차없는 자본주의: 파괴와 혁신의 역사』 주경철 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2012), pp. 100-136.

IV. 주식시장의 문제와 그에 대한 태도

『젠틀맨 회계사』에서 당대 지주들이 상업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쫓아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일상의 삶의 영역과 정신 혹은 문화 면에서도 주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점은 오히려 당대의 변화에 잘못 대처할 때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라는 것이다. 토지 경영에서의 금전적 이해를 중시하고 그를 위한 태도의 변화까지 받아들이는 모습과 주식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지주층의 입장에서 당대 경제발달을 예의 주시하고 이해한 결과였다.

1. 주식거래의 위험성

『젠틀맨 회계사』는 복식부기를 통해 속임수와 실수로 인한 재산 상실 위험을 방지하고 토지의 경제적 상황을 낱낱이 알고 조처할 것을 권했다. 본문에서는 젠틀맨들의 재산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의식은 책의 행간에서, 그리고 그 본 내용 밖에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의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주식투자이다. 이 안내서의 본문에서는 주식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노스나 예시된 장부의 지주가 주식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잘 알고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젠틀맨 회계사』의 표지에서는 제목과 함께 이 책이 보여주는 바를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책 내용의 균형 있는 요약이나 목차라고 하기 힘들다. 『젠틀맨 회계사』의 본문은 복식부기만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토지에서의 복식부기가 중심이 되었다. 표지의 다섯 항목의 순서로 책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다섯 가지가 균등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심지어 네 번째 항목인 '은행, 주식과 그 외에 대한 설명과 주식거래에서의 사기 간파'에서 언급된 주식은 본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책 전반에 산재해 있다. 이를 통해 저자가 주식과 주식거래에서의 시기 간과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이 복식부기를 통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속임수를 방지한다는 것인 바, 사실 그러한 경계의 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거래였다. 노스가 예시로 제시한 토지에서의 회계장부에는 주식에 관련된 항목이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노스나 그의 독자들이 주식에 무지했던 것은 아니다. 『젠틀맨 회계사』의 본문 중에도 주식이나 인도회사, 교역에 관한 언급들이 간간히 발견되고, 이런 내용들은 독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이었다. 노스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설명하지만 주식이나 회사는 해당 항목에 대한 부연 없이 언급한다. 주식투자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실제 예시에서 주식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의도적으로 주식투자를 피한다는 의미이다.

주식거래에 대한 노스의 경계와 우려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용어집이다. 용어집은 일종의 부록처럼 끝에 첨부되었다. 이는 책의 본문과 부합하는 색인이 아니라 상당히 독립된 내용과 단어구성을 가진 부록으로, 복식부기뿐만이 아닌 회계전반, 법, 상업 분야에서의 용어들도 풀이하고 있다. 풀이의 길이는 단어마다 달랐고, 때때로 해당 단어에 대한 노스의 확실한 주관이 드러났다.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복식부기를 설명하고 그 사용을 끈기 있게 설득했던 『젠틀맨 회계사』의 본문과는 사뭇 다른 태도라 할 수 있다. 본문은 최대한의 설득과 전달을 목표로 하여 비교적 차분히 서술되었던 반면, 용어집은 본문과 분리되어 보다 주관적 가치관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창구였다.

'주식과 주식매매(Stocks, and Stock-Jobbing)'는 용어집의 100여 단어 중에서도 노스가 특히 신랄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이었다. 특별히 한 페이지 반 남짓의 길이로 길게 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노스의 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주식과 주식매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식과 주식거래는 이 시대에 생겨난 불가사의이다. 법적으로는

법인(法人)이라고 하여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정치적 본질을 가진다. 구교(舊敎)적인 모형으로 속임수만을 목적으로 하여 고안된 것이다. 회사법은, 얼마나 약탈하든지 간에, 그의 머리와 두 손이 그 사기극을 획책하고 행했음에도, 그의 사적인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중략) 그렇게 자신들이 지상의 소금인 양, 이 나라 대중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 이 속임수가 처음 생겨났을 때, 모든 비열한 기획들이 주식에 따라붙었다.⁷⁶

주식거래에 대한 노스의 강한 반감은 막연한 공포라기보다 실상(實像)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법인과 그 규제에 관한 그의 간결한 설명은 핵심을 찌른다.⁷⁷ 내부자들의 조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나 규제는 다만 법인에 제한된다는 것이 그가 이해한 본질적인 문제였다. 그에 따르면 주식거래는 필연적으로 속임수와 조작과 결부될 수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풀이에는 주식거래에서의 수익에 의존해 사는 이들에 대한 비판, 주식의 가치를 부풀리는 행태에 대한 고발,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놀음에 넘어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한탄이 담겼다.

주식매매의 기만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노스는 아프리카 주(African-Stock)⁷⁸의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주식매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해당 주식의 가격을 올린 것은 그 판매자들이었다. 아프리카 주도 회사 운영자들의 의도적인 조작으로 주가가 네 배로 뛰었다. 그리고 거품이 꺼지자 “서로 한통속인 음모자들이 지갑과 돈줄을 집어삼킨 반면 여기 흘렸던 어리석은 다수는 떨어져 나왔다.”⁷⁹ 이 사건은 『첸틀맨 회계사』에 나오는 속임수와 그 손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사례이다.⁸⁰

⁷⁶ [North], *Accomptant*, pp. 227-228.

⁷⁷ 조엘 바칸(Joel Bakan)은 현대의 회사가 사리사욕의 추구를 용인하고 도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18세기에 노스도 회사의 공허한 실체를 꿰뚫어 보았다. Joel Bakan, *The Corporation: the pathological pursuit of profit and power* (New York: Free Press, 2005), p. 28.

⁷⁸ 왕립 아프리카 회사(Royal African Company)의 주식

⁷⁹ [North], *Accomptant*, p.228.

⁸⁰ 왕립 아프리카 회사는 실제로 1672년 설립되어 1676년까지 111,100파운드의 주식

그러나 노스는 직접적인 투자자가 될 의사가 없었더라도 회사나 주식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엄밀히 말해 주식 그 자체가 문제시 된 것은 아니었다. 주식은 『젠틀맨 회계사』의 본문 중에서 여러 번 중립적으로 등장했다. 손익계정을 세부화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대목에서는 그 하위 계정의 예시로 부동산, 대부(貸付), 도박과 함께 주식거래를 들었다.⁸¹ 큰 규모의 일을 운영할 때 특히 복식부기가 유용하다고 주장할 때의 예시로는 세관과 인도회사가 제시되었다.⁸² 그가 비유로 구현한 서랍장의 예시 안에서는 서랍장의 보석을 팔고 증권을 양도하여 동인도회사의 주식을 샀다는 항목도 있다.⁸³

그렇다 해도 주식거래에서의 비열한 행태는 결코 주식거래와 분리될 수 없었고, 이러한 속임수와 사기는 젠틀맨을 순식간에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젠틀맨이 부덕해서 파멸하는 것보다 회계를 모르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다는 노스의 언급은 이와 같은 주식거래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위험은 내부자들의 은밀한 공모로 다수가 속아 넘어가고 또 회사법의 약한 규제로 인해 이를 막을 수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말하자면 법의 규제가 참여자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의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지주층의 경제 인식과 주식투자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는 경제 인식의 발달이 자연스럽게 주식투자라는 적극적인 이윤 추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을 발행했다. 이 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여겨졌고, 1691년에는 주당 300%의 보너스를 주식으로 지급했다. 노스가 말하는 주가 상승은 이 시기의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듬해에 이미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전쟁 발발로 인한 손실 증가와 투자자 유치를 위한 부정직한 배당 지급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재정 악화에 시달렸다. W.R. Scott, "The Constitution and Finance of the Royal African Company of England from Its Foundation Till 1720,"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8, No.9 (Jan., 1903), pp.250-259

⁸¹ *Ibid.*, pp. 12-13.

⁸² *Ibid.*, pp. 61.

⁸³ *Ibid.*, pp. 47, 52.

이것은 지주의 금전적 관심이 부족해서도, 신사적 가치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젠틀맨 회계사』에는 이윤과 손실에 대한 지주의 인식이 뚜렷하게 보인다. 노스는 주식시장의 발달에 관해서도 결코 무지하지 않았다. 주식과 주식거래에 대한 노스의 비판은 역으로 그가 주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16세기 말부터 여러 회사들이 설립되었고, 17세기 말에는 잉글랜드 은행(the Bank of England)의 창설과 국채 발행으로 대표되는 금융혁명이 일어났다. 그 결과 금융투자의 기회가 공공에 열려 투자할 자본을 가진 이면 누구나 이 기획들에 참여할 수 있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는 주식투자 붐이 일어났다. 잉글랜드 은행과 주요 주식회사들은 정부에 대부하고 특혜를 수여 받았다.⁸⁴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는 다시 부유층의 자금을 쉽게 끌어들이는 바탕이었다. 그러나 『젠틀맨 회계사』의 장부에서는 국채나 주식에 대한 투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딕슨(P. G. M. Dickson)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18세기 초·중반의 국채와 주식 투자자들 중 지주층은 극소수였다.⁸⁵

캐러서스(Bruce G. Carruthers)는 금융시장이 덜 발달하여 법적으로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들이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법적인 안정성이 정비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계약체결과 거래에는 높은 비용이 든다.⁸⁶ 정부의 보증도 주식시장에서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다. 노스는 『젠틀맨 회계사』의 '주식과 주식거래'에 대한 풀이에서 주식에 사기가 따라붙는 이유를 내부자들의 공모와 그에 대한 회사법의 약한 규제 때문이라고 보았다는 점을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⁸⁴ 이 시기 대표적인 주식회사로는 동인도회사, 잉글랜드 은행, 남해회사가 있었다.

⁸⁵ 공채 투자자들에 관한 분석 결과 귀족과 의원은 투자자들 중 극소수였고, 투자한 의원들 중에서도 지주층보다는 다양한 중간계층이 주류였다. P. G. M. Dickson, "Public Creditors in England," in idem, *The Financial Revolution in England: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Public Credit 1688-1756* (Hampshire: Gregg Revivals, 1993), pp. 249-303.

⁸⁶ 그는 특히 정치와 경제가 금융시장에서 긴밀히 연관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제적 합리성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Bruce G. Carruthers, *City of Capital: politics and markets in the English financial revolu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저자 자신의 개인적 의견만은 아니다. 주식에 대한 경계심과 반감은 당대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주식거래는 모든 종류의 시장활동을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로 쓰였고 사리사욕의 추구, 부패와 연관되었다.⁸⁷ 그리고 '악', '속임수'와 같은 단어들은 흔히 상업적 성공을 지칭하던 말이었다.⁸⁸ 디포(Daniel Defoe)의 「주식 중개인들의 부정에 대한 폭로(The Villany of Stock-jobbers detected, 1701)」는 이 점을 말해 주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현실을 잘 파악해 알고, 자신의 것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은 이러한 위험을 배경으로 더더욱 가중되었다. 복식부기는 지주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관심사를 관리하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젠틀맨 회계사』의 지주는 상업과 금융업에 적극 투자하지 않지만, 그의 주저는 역설적으로 상업과 금융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주식 거래에는 속임수와 기만이 따라붙기 마련이라는 것이 그가 견지하는 태도였다. 그 의심 어린 시각은 『젠틀맨 회계사』의 출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1720년 8월의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거품사건이 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우후죽순 설립된 '거품회사'들 중 다수도 1720년을 전후로 주식의 폭락을 겪었다.⁸⁹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주식투자에 대한 노스의 경계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젠틀맨 회계사』에 나타난 지주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확보하고 재산을 늘리는 반면 도시의 금융 부문을 회피한 것을 두고 그가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그 자신은 자신이 훨씬 건설한 자세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곧이어 일어난 주식시장의 붕괴 사태를 보면 그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그 자신이 런던에 금융거래를 하는 대리인을 두고 있고, 각종 회사의 주식을 잘

⁸⁷ Dickson, *Financial Revolution*, pp. 32-33.

⁸⁸ Grassby, *Gentleman in Trade*, p. 269.

⁸⁹ 남해회사 외의 비교적 큰 거품회사로는 왕립 견직물회사, 요크 건축회사, 영국 동 제련회사, 그리고 웨일즈 동 제련회사 등이 있었다. 아사다 미노루, 『동인도회사: 거대 상업제국의 흥망사』 이하준 역. (서울: 도서출판 파피에, 2004), pp. 142-145.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만일 금융 부문이 비교적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로 여겨지면 언제든지 그의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려 할 것이다. 지주들의 주식투자는 실제로 그 다음 세대에 걸쳐 증가했다.

노스는 상업세계와 벽을 쌓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소통하고 있었다. 복식부기는 '상인회계'로 불릴 정도로 상업세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주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기법이였다. 노스는 그와 같은 기법을 들여와 지주들의 세계에 적용하고 있다. 그는 복식부기 지식이 토지운영뿐 아니라 유산관리나 공직수행에서도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지주층의 영역과 상업세계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노스만의 것은 아니었다. 로크도 『교육론』에서 “모든 젠틀맨들이 상인회계를 완벽히 배울 것을 권고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상인들로부터 왔고 [그 기법을] 상인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젠틀맨들에게 속하지 않은 기술이라 여기지 않아야 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⁹⁰

⁹⁰ Locke,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p. 157.

V. 결론

로저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는 지방의 지주였던 저자가 실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통적 지주들에게 복식부기를 권유한 회계안내서이다. 영국에서는 수세기 전부터 중간관리인에 의해 토지관리장부가 기록되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부터 전해진 후 차츰 널리 보급된 복식부기는 당시 출판된 상업안내서들 중 흔한 주제였다. 그러나 토지관리에 복식부기를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확산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주층이 상업 세계의 가장 중요한 기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 자세와 삶의 태도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스의 『젠틀맨 회계사』라는 중요한 회계안내서를 통해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추론해 보았다.

노스가 주로 강조하는 바는 지주들이 직접 복식부기 지식을 숙지하고 활용하면 사기에 넘어가지 않고 파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을 잘 분석해보면 단순히 소극적인 위험 회피에 그치지 않고, 토지 재산을 잘 지키고 이를 운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당대의 가장 큰 위험은 주식투자였다. 이는 지주들을 파산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사실 주식거래에 대한 경계심과 비판은 당대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주식거래에서의 사기와 속임수로 인한 피해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데서 왔으므로, 복식부기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문제와 위협을 의식한 지주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주가 복식부기 기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용해야 했다.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지주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에까지 개입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많은 시간을 들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했다. 『젠틀맨 회계사』의 예시에서 지주는 그 자신의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장부에 기록해 넣었다. 저자는 이 자체가 긍정적이고 훌륭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지주는 느슨하고 향락적인 삶을 버리고 성실하고 근면한 경영인의 자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주층의 주된 경제적

기반은 여전히 토지였더라도, 토지의 관리와 활용에 작용하는 가치관은 상업세계의 발달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었다.

지주들이 복식부기를 배우고 활용하기 위한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이 책은 주식과 금융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주층의 절박한 위기감을 보여준다. 이 위기감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왔다. 『젠틸맨 회계사』는 주식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주식투자는 하지 않는다. 저자는 금융 시장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했다.

『젠틸맨 회계사』에 나타난 주식거래에 대한 경계는 이 책의 출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20년에는 남해회사를 비롯한 거품회사들의 주식폭락과 도산으로 주식시장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1730년대 의회에서는 바나드 경(Sir John Barnard)을 비롯한 지주층으로부터 주식거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어, 1734년에는 주식거래를 제재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젠틸맨 회계사』는 지주층이 상업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더라도 경제 발달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 추구에서도 이미 현저히 달라진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묘사된 지주는 토지를 기업과 같이 경영하고 자신의 금전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단지 부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 토지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복식부기는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해준 구체적 수단이었다. 상업세계에서 발전한 이 기법을 빌려와서 자신의 세계에 적용한다는 것 또한 지주층이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는 방식을 준비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18세기 초에 전통적 지주들은 아직 상인·금융가들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두 세계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었음은 사실이며, 이것은 상인·금융가들이 문화적으로 지주층에 동화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양방향적인 작용이었다. 『젠틸맨 회계사』가 보여주듯이 지주들도 상업세계로부터 배울 수 있었고, 그 배경에는 경제 발달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함께 금전적 이윤에 대한 깊은 자본주의적 관심이 작용했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 Campbell, R. *The London Tradesman*. London, 1747.
- Clerke, George. *The Landed-Man's assistant or, the Stewards Vade Mecum*. London, 1728.
- Locke, John.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and Of the Conduct of the Understanding*. Ed. Ruth W. Grant and Nathan Tarcov.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6
- [North, Roger]. *The gentleman accomptant*. London, 1714.
The gentleman accomptant. London, 1715.
The gentleman accomptant. London, 1721.
The Autobiography of Roger North. Edited by A. Jessopp. London, 1887.
- R[ichards], T[homas]. *The Gentlemans Auditor*. London, 1707.
- Snell, Charles, *Accompts for Landed-Men*. London, [1711?]

2차 자료

1) 단행본

- 미노루, 아사다. 『동인도회사: 거대 상업제국의 흥망사』. 이하준 역. 서울: 도서출판 파피에, 2004
- 애플비, 조이스. 『가차없는 자본주의: 파괴와 혁신의 역사』. 주경철 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2012.
- 허쉬먼, 앨버트. 『열정과 이해관계: 고전적 자본주의 옹호론』. 김승현 역. 서울: 나남출판, 1994.
- Appleby, Joice Oldham. *Economic Thought and Ideology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 Bakan, Joel. *The Corporation: the pathological pursuit of profit and power*. New York: Free Press, 2005.
- Baywater, M. F., and B. S. Yamey. *Historic accounting literature: a companion guide*. London: Scolar Press and Tokyo: Yushodo Press, 1982.
- Bourne, Henry. *English Merchants: memoirs in illustration of the progress of British commerce*. London: Kessinger Publishing, 1886.
- Chapman, S. D. *Merchant Enterprise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Cain, P. J., and A. G. Hopkins, *British Imperialism: Innovation and Expansion, 1688–1914*.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3.
- Carruthers, Bruce G. *City of Capital: politics and markets in the English financial revolu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Crosby, Alfred W. *The measure of reality: quantification and Western society, 1250–16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Dickson, P. G. M. *The Financial Revolution in England: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Public Credit 1688–1756*. Hampshire: Gregg Revivals, 1993.
- Earle, Peter. *The making of the English middle class: business, society, and family life in London, 1660–173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Glaisyer, Natasha. *The Culture of Commerce in England 1660–1720*. London: The Boydell Press, 2006.
- Grassby, Richard. *The business community of seventeenth-century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_____. *The English Gentleman in Trade: The Life and Works of Sir Dudley North, 1641–9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Hexter, J. H. *Reappraisals in History: new views on history and society in early modern Europe*.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 Inwood, Stephen. *A History of London*. New York: Carroll & Graf Publishers, c1998.

- Michie, R. C. ed. *The Development of London as a Financial Centre Volume 1: 1700–1850*. London: I. B. Tauris & Co. Ltd., 2000
- Murray, David. *Chapters in the History of Bookkeeping Accountancy & Commercial Arithmetic*. New York: Arno Press, 1978.
- Parker, R. H. *Papers on Accounting History*.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84.
- Parker, R. H., and B. S. Yamey, ed. *Accounting History: Some British Contrib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Stone, Lawrence, and Jeanne C. F. Stone. *An Open Elite? : England, 1540–1880*. Oxford: Clarendon, c1984.
- Wiener, Martin J. *English Culture and the Decline of the Industrial Spirit, 1850–19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Yamey, B. S., H. C. Edey, and H. W. Thomson. *Accounting in England and Scotland: 1543–1800*, London: Sweet & Maxwell, 1963.

2) 논문

- Bryer, R. A. “Farmers’ Accounts and the ‘Agrarian Revolution’ in England: A Research Agenda.” *Proceedings of the Sixt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Accounting Conference* (University of Manchester, 2000c).
- _____. “The history of accounting and the transition to capitalism in England. Part one: theory.”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5 (2000): 131–162.
- _____. “The history of accounting and the transition to capitalism in England. Part two: evidenc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5 (2000): 327–381.
- Cain, P. J., and A. G. Hopkins.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Expansion Overseas I. The old Colonial System, 1688–1850.” *The Economic History Review*, New Series, Vol. 39, No. 4 (Nov., 1986): 501–525.
- Carruthers, Bruce G., and Wendy Nelson Espeland. “Accounting for Rationality: Double-Entry Bookkeeping and the Rhetoric of Economic Ration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7, No. 1 (Jul., 1991): 31–69.

- Chan, Mary. "Roger North's Life of Francis North."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New Series*, Vol. 24, No. 166 (May, 1991): 191–211.
- Chapman, S. D. "Aristocracy and Meritocracy in Merchant Banking."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7, No.2 (1986): 180–193.
- Conrfield, Penelope J. "The Rivals: landed and other gentlemen." In *Land and Society in Britain, 1700–1914: Essays in Honour of F.M.L. Thompson*, edited by F. M. L. Thompson, N. B. Harte and R. Quinault, 1–33.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Edwards, John Richard., Graeme Dean, and Frank Clarke. "Merchants' accounts, performance assessment and decision making in mercantilist Britain."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34 (2009): 551–570.
- Grassby, Richard. "English Merchant Capitalism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he Composition of Business Fortunes." *Past & Present*, No. 46 (Feb., 1970): 87–107.
- _____. "Social mobility and business enterprise in seventeenth century England." In *Puritans and Revolutionaries*, edited by D. Pennington and L. Thom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Hatfield, H. R. and A. C. Littleton. "A Check-List of Early Bookkeeping Text." *The Accounting Review*, Vol. 7, No. 3 (Sep., 1932): 194–206.
- Horwitz, Henry. "The Mess of the Middle Class Revisited: The Case of the Big Bourgeoisie of Augustan London." *Continuity and Change*, Vol.2, Part 2 (1987): 263–296.
- Lang, R. "Social Origins Aspirations of Jacobean London Merchants."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ol. 24, No. 1 (1974).
- Lee, G. A. "The Francis Willughby Executorship Accounts, 1672–1682; An Early Double Entry System in England." *Accounting Review*, Vol.5, No.3 (July 1981): 539–553.
- Littleton, A. C. "Italian Double Entry in Early England." *The Accounting Review*, Vol. 1, No. 2 (Jun., 1926): 60–71.
- Mephram, Michael J. "The Scottish Enlightenment and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The Accounting Historians Journal*, Vol. 15, No. 2

- (Fall 1988): 151–176.
- Napier, Christopher J. “Aristocratic Accounting: the Bute Estate in Glamorgan 1814–1880.”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21, No. 82 (1991): 163–174.
- Oldroyd, David. “Through a glass clearly: management practice on the Bowes family estates c.1700–70 as revealed by the accounts.” *Accounting, Business & Financial History* Vol.9, No.2 (July, 1999): 175–201.
- Parker, Robert H. “Roger North: gentleman, accountant and lexicographer.” *Accounting History*, Vol. 2, No. 2 (November, 1997): 31–51.
- Rogers, Nicolas. “Money, land and lineage: the big bourgeoisie of Hanoverian London.” *Social History*, Vol. 4, No. 3 (1981): 437–454.
- Scott, W.R. “The Constitution and Finance of the Royal African Company of England from Its Foundation Till 1720,”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8, No.9 (Jan., 1903): 241–259.
- Stone, Lawrence. “Social Mobility in England, 1500–1700.” *Past & Present*, No. 33 (April, 1966): 16–55.
- Winjum, James O. “Account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An Accountant’s View.”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9, No. 2 (Autumn, 1971): 333–350.
- Yamey, Basil S. “Account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Further Notes on a Theme by Sombar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 No. 2 (Autumn, 1964): 117–136.

Abstract

The Economic Awareness of the English Landed Class in the Beginning of the Eighteenth Century

Jiwon Han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economic awareness of the English landed class in the beginning of the eighteenth century. Roger North(1651-1734)'s *Gentleman Accomptant*(1714), a double-entry bookkeeping manual for nobilities and gentries, is the main material us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landlords' economic mentality.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England, the economy was growing rapidly and the moneyed interests emerged while the traditional landed elites remained in powe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much investigated before, but the focal point of controversies tended to lie more on the moneyed side; whether they successfully integrated themselves into the landed class or formed distinguished self-consciousness as an independent group. On the other hand, the

landed have been described rather consistently, although differences in degree, as had accepted the market philosophy but still heavily influenced by their old genteel value. It is said that the latter limited the former, because gentility ran counter to extensive pursue of profit and involvement in the world of every day labor. However, North' s *Gentleman Accomptant* suggests a possible adjustment to this widely accepted picture of the English landed class: their economic awareness developed in interaction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ey witnessed and were notably becoming capitalistic. Even though the landed had no direct connection to the commercial world, change in their mentality could occur not necessarily combined to the change in behavior.

Gentleman Accomptant is a manual to advice and help landlords learn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pply it to estate management. Among the literature of double-entry accounting for estate management, *Gentleman Accomptant* is outstanding that it contains full descriptions of the usefulness and application of double-entry for the landed class. The author himself was a landlord and the book is based on his actual experience. Its contents and context reveal that pecuniary interest was highly regarded in estate management that even some modification of the landlords' genteel life style could be emphasized. Indeed, double-entry bookkeeping was a demanding skill; a landlord had to spend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daily and interfere with trivial operations of his estate to keep the book accurately. Accepting these conditions of bookkeeping, North proceeds to express that such diligence is more valuable and desirable than leisure.

Double-entry for landlords is recommended not only as an useful skill to maximize the estates' profit but also as a defense against fraud and deceit. What is criticized in this book as the most dangerous and vicious threat is stock-jobbing. Considering that aversion toward stock market was not uncommon among the

contemporaries, North's disdain for stock-jobbing is understandable. In this aspect, double-entry bookkeeping management of estate was a kind of solution suggested to cope with the fatal threat of financial fraud.

The landlords' wariness toward financial market cannot be equated with ignorance about it. Although they did no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market, the landed class could have been well aware of the market's fundamentals. In *Gentleman Accomptant*, several term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s are mentioned in the text naturally implying that landlords were not unfamiliar with banks, stocks, companies and other financial operations. North's long and harsh criticism on stock-jobbing, expressed in the attached wordbook, is based on keen understanding on the nature of the companies and the stock market. North insists that stock-jobbing inevitably bears fraud that could economically ruin landlords; it is because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while legal regulations on the market are insufficient to prevent the insiders' conspiracy. Thus the landlords' reluctance to join the stock-market should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rational calculation to protect their economic interest.

The landed, such as demonstrated in this book, not only knew well about the commercial and financial market but also acted heavily based on economic interest that even modification of traditional lifestyle and values could be accepted. Stock-jobbing was criticized because its innate conditions were unfavorable to landlords but not because it was a mysterious evil. Double-entry bookkeeping for estate management itself is an example of the landed class' learning from commercial world to protect and enhance their own economic advantage.

The landed class was catching up with the changes and inventions of commercial world in their own way. In the beginning of eighteenth century, the spheres and mentalities of the landed and

the moneyed were getting closer. Not only gentrification of the moneyed class happened; the landlords' attitudes could be affected and stimulated by socioeconomic developments as well. The landlords like such clearly display developed capitalistic mentality in the age of early capitalism.

Keywords : Roger North, the landed class, estate management, double-entry accounting, economic awareness, capitalistic mentality
Student Number : 2010-22958